

“봉은사 문제 대화로 해결”

총무원, 토론회 수용

서울 강남 봉은사 문제와 관련 조계종 총무원이 불교계 단체들의 토론회 제안을 받아들였다. 총무원은 지난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 포교원장 혜종스님, 교육원장 현승스님을 비롯한 부실장스님들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정리했다.

총무원은 회의 종료 후 총무부장 영담스님 명의로 ‘불교 단체들의 토론 제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영담스님은 “제33대 총무원 집행부는 대화와 토론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원칙을 견지해 왔다”면서 “이에 따라 단체들의 토론회 제안을 받아들여 대화의 장을 적극적으로 열어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영담스님은 “이를 위해 주제, 방식, 시기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총무원은 지난 3월27일 총무부장 영담스님과 기획실장 원담스님이 봉은사 주지 명진스님과 첫 회동을 갖는 등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봉은사도 불교계 단체들의 토론회 제안을 수용할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봉은사 문제가 종단 내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같은 움직임은 더 이상의 갈등은 불교와 종단 전체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을 수렴한 것으로 보인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구족계 수계산림 예비승 전원 ‘무소유’ 서약

스님 첫발 내딛는 자리
 입적시 재산 ‘종단출연’
 유언장 작성 모범사례

지난 3월31일 입제한 제30회 조계종 단일계 단 구족계 수계산림에서 구족계를 받는 예비승 전원이 ‘사유재산의 입적 후 종단 출연’을 서약하는 유언장을 쓸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는 “수계산림 기간 중인 오는 7일 오후 4시 제8교구본사 직지사 만덕전에서 사미 155명, 식자마나니 121명 등 총 276명의 예비승들이 재산의 입적 후 종단 출연을 약속하는 유언장을 작성한다”고 3월30일 밝혔다.

구족계 수계자들의 유언장 작성은 2007년 9월 개정된 승려법에 대한 시행령인 ‘승려 사유 재산 종단 출연에 관한 령’에 따른 조치다. 승

가공동체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핵심 종책에 모든 종도가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정식 스님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자리에서 무소유를 서약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어 향후 공감대를 한층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종단 소속 모든 스님들은 령에 의거해 구족계 및 사미(나)

계 수계 시, 각급 고시 응시와 법계 품수 시, 분한신고와 주지 품신 시 입적할 경우 사유재산을 종단에 귀속시키겠다는 내용의 유언장과 증여계약서 등을 총무원에 제출해야 한다. 총무부장 영담스님은 “종책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종도들의 참여의지를 북돋우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8일까지 계속되는 구족계 수계산림은 예불, 교수사 스님들의 계율강의, 108배 참회, 철야정진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교육이수자들은 8일 수계식에서 전제대회상 고산스님으로부터 구족계를 수지하게 된다.

장영성 기자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일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을 방문, 군종교구장 자광스님을 비롯한 100여명의 군승들과 함께 고 한주호 준위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나라 위해 큰 일하셨으니, 용기 내시라”

총무원장 자승스님, 故 한주호 준위 유가족 위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군종교구장 자광스님을 비롯한 군승들과 함께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故(故) 한주호 준위 빈소를 찾아 고인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일 빈소가 마련된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해 고 한주호 준위의 영단에 국화꽃을 올린 후 군종교구장 자광스님을 비롯한 100여명의 군승들과 함께 반야심경을 봉독했다.

반야심경 봉독 후 총무원장 스님은 고인의 아들 한상기 중위와 딸

한상기 씨에게 “아버님께서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셨다”면서 “마음들과 함께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한주호 준위 빈소를 찾아 고인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다른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다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뜻을 국민의 가슴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31일에도 빈소를 방문해 조문을 하고 유가족을 위로한 군종교구장 자광스님은 “고 한주호 준위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한 영

웅”이라면서 “애국자의 가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유가족을 격려했다.

고 한주호 준위와 부인 김말순 씨는 해군법당 흥국사(진해)에 다닌 신심 있는 불자였다. 한 준위의 범명은 해륜(海輪), 해는 ‘바다’를, 륜은 ‘지혜의 바퀴’를 상징한다. ‘부처님의 지혜로 바다를 지키는 수호자’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범명이다.

해군 군승들은 장례식장 옆에 자리한 국군수도병원 법당을 오가며 고 한주호 준위의 영결식 준비에 들어갔다. 1일 오전에 진행된 입관

식에 참여해 목경을 하며 고인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해군장(海軍葬)으로 거행되는 고 한주호 준위의 영결식에도 해군 군승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군종교구장 자광스님은 “해군 법당을 비롯한 전군(全軍)의 법당에서 고 한주호 준위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천안함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기도를 분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호섭 해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은 “고 한 준위는 애국정신과 군인 정신을 지닌 불교신자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군특수전(UDT) 요원인 고 한주호 준위는 지난 3월30일 천안함 실종자 구조 활동을 위해 수중 작업에 참여했다 안타깝게 순직했다. 성남=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정우스님 정재, 통도사 등기 “출가사문으로서 당연한 일”

“수도권 20여개 사찰 창건주 권한도 본사로”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정우스님이 종단에서 입법예고한 ‘승려 재산 종단 출연에 관한 령’에 앞서 이미 이 같은 내용을 실천에 옮기고 있음이 확인됐다. 통도사 주지 정우스님은 “출가 사문으로서 당연히 이행해야 할 일”이라면서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제천불교마을의 전답(田畠)을 통도사 영농법인으로 등기 이전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스님이 창건한 20여개의 수도권 사찰도 교구본사로 창건주 권한을 이행하고 있다.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설립한 통도사 영농법인은 본사주지를 비롯해 사중(寺中)의 스님들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제천불교마을의 전답은 향후 삼보정재로 영원히 남게 됐다. 현행 국가법령으로는 사찰 명의의 전답을 매입하는 것이 불가능해, 제천불교마을 형성당시 불가피하게 정우스님의 개인 명의로 구입을 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제천불교마을의 대지와 임야는 대한불교조계종 운주암 명의로 되어 있다. 9만9173㎡(약 3만여 평)에 이르는 제천불교마을은 정우스님이 서울 구룡사 주지 소임을 보고 있을 당시에 향후 생활 불교의 수행도량으로 삼기 위한 목적

으로 마련한 것이다.

정우스님은 제천불교마을을 만들면서 “이 곳은 신도들과 힘을 합쳐 마련한 도량으로, 앞으로도 계속 불교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인 공증을 통해 삼보정재의 유출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 하지만 정우스님은 “당장 이어 어떤 일이 생기지 않겠지만, 세월이 흐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계속 불교의 삼보정재로 남아,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도량이 될 수 있도록 등기 자체를 이전하기로 결심한 것”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지난 1982년 인도성지순례 당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언젠가는 찾아올 ‘죽음’에 대해 준비를 하는 것이 출가자의 도리라는 것을 절감했다”면서 “불교집안에 들어와 부처님 은혜로 살아왔는데, 회향 또한 불교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결심했다”고 무소유 실천의 배경을 설명했다.

2면에 계속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모든 종단, 봉축행사 적극 동참”

종단협 이사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스님·조계종 총무원장)는 지난 1일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불기2554년도 제2차 이사회를 개최,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와 연동축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종단협 회원종단이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올해 봉축행사는 5월21일 부처님 오신날 당일 봉축법회를 전국 사찰에서 동시에 진행하며, 5월14일부터 16일까지 동국대운동장, 조계사앞 우정국로, 광화문 등에서 연동축제를 진행한다. 종단협 차원에서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스리랑카 등 남방불교권의 스님들이 연동축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초청하기로 했다. 이밖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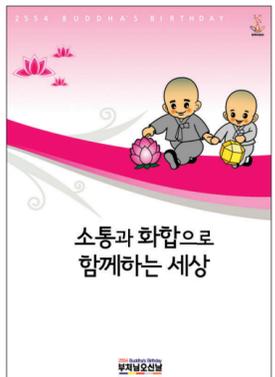
인천국제공항에서 전통등 전시회를 개최하고, 청계천과 광화문에도 연등을 달아 봉축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새연재 ‘33관음성지를 찾아서’

7면



봉축포스터 발표

봉축위원회가 지난 3월31일 발표한 2554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포스터(사진). 포스터는 모두 3종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초청법회 및 광주전남불교신도회장 취임식

소통과 화합의 대법회

2010년 4월 16일(금) 오후 3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증명법사 천운스님(원로의원) 주회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광주전남불교신도회
 주관 광주불교사암연합회, 대한불교조계종 원용화쟁회
 후원 대한불교조계종,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불교방송, 불교신문, 불교TV, 법보신문, 현대불교, (주)문화통협한(주)백제, (주)한남세라믹, 금호산업, 기흥건설, 라마다프라자광주호텔, 동양석재(주), (주)엔칼라스, (유)나라운수, 태오건설(주), 2010국제불교문화박람회
 문의 광주전남불교신도회 사무국 ☎ 062-385-1336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광주전남불교신도회장
김용현

www.inbex.kr

인간과 자연 그리고 문화의 공존

2010국제불교문화박람회

International Buddhism Culture Exhibition 2010

일시 2010. 04. 15(목) ▶ 18(일) 4일간
 장소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제 1전시장

전시구성
 • 시장 및 템플스테이 홍보관
 • 불사용품, 불교용품, 생활용품, 차, 식품
 • 사찰건축·불교장례 등 불교관련 용품 및 산업 품목

문화행사
 • 불교의상 및 우리옷 패션쇼
 • 영산재
 • 불화 화력 43년 신동화사 불화스물전
 • 불교의상 및 천연염색 의상 기획전
 • 법대 시연, 법고 시연, 불교무예 시범, 전통차 시연

INBEX 2010